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노동자운동의 전망을 열다 — 좌파노동자회 2017년 총회

/ 구교현

2017년 2월 19일, 전국 각지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좌파노동자회 회원들은 한 해를 결산하며, 30년의 세월이 지난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노동자운동의 전망을 토론했다. 좌파노동자회 2017년 총회는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대회의실에서 2시간 반 가까이 진행되었다.

총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세상을 떠난 정찬훈, 윤희왕 두 회원에 대한 추도식이 열렸다. 두 회원의 옛 모습을 정리한 영상이 상영된 후 신현창 대표는 슬픔에 젖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정찬훈 동지는 항상 운동의 빈자리를 찾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던 동지였다. 이런 동지들이 있었기에 우리 노동운동이 이만큼 전진할 수 있었다.” 정찬훈 회원과 30여년 가까이 함께 활동해 온 허



행사를 진행하던 신현창 대표가 말을 잊지 못하고 있다.

영구 전 대표의 설명이었다. 아울러 허영구 회원은 1주기가 되는 올해 12월 24일에 맞춰 유고집을 발간해 정찬훈 동지의 자녀와 후배들에게 동지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왕 동지와 오랫동안 충북에서 함께 활동해 온 윤남용 회원은 “윤희왕 동지는 본인의 어려운 조건에도 장애인 인권과 활동보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동지를 소개하며,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헌신적으로 살아온 동지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들이 두 동지의 영정에 헌화하는 것으로 추도식은 마무리되었다.

총회는 좌파노동자회를 평가하고 전망을 토론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허영구 전 대표는 좌파노동자회의 지난 활동을 총평하며 “민주노조운동으로 대표되는 ‘87 체제’와 IMF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97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노동자운동의 선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주노조운동 혁신 사업은 역량에 비해 과도하게 진행되었고, 금융수탈체제 종식과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 조직화 사업은 소홀할 수밖에 없었지만, 탈핵과 평화, 국제연대 강화 사업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87년 민주노조운동 30년, IMF 외환위기 20년 되는 해를 맞이해 새로운 전환기로서 ‘2017 체제’를 열어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가 있다. 금융수탈과 비정규직불안정노동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더 집중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평가와 전망 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어서 조직 전환 안건을 논의했다. 비정규 불안정노동 조직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조직의 이름과 체계를 일신하자는 뜻을 모은 것이다.

조직 명칭 변경을 놓고 장시간 토론이 이어졌다. 이 시대의 불안한 일자리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향을 내세울 것인가가 주요한 관심사였다. 여러 회원들은 ‘평등’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다르게 차별받고,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면서 돈과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차별받는 현실을 넘어서자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불안정한 일자리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운동이 다른 미래를 전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고민도 있었다.

모두 여섯 개가 공모되었고 그 가운데 중앙위원회에서 다수를 얻은 두 개의 안이 총회에 올라왔다. “비정규·불안정 노동자들의 ‘평등한 연대’”와 “노동자의 대안(Now, plan B)”이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어떤 것도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리하여 애초의 여섯 개는 물론이고 현장에서 새로 제안을 받아 원점에서 토론을 시작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가장 낮은 노동자들과 ‘함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등노동자회’”, “불평등을 넘어, ‘노동의 미래’”, “노동주권 회복을 위한 ‘노동주권연대’”, “전환 시대 ‘평등한 연대’”, “평등노동자 넷” 등이 후보였다.

결국 명칭은 아직 결정되지 못했다. 이날 그 자리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과반이 된 명칭이 있었으나, 총회가 끝난 뒤 의외의 문제가 생기면서 명칭 결정은 완전히 처음부터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규약은 앞으로의 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체계와 기구 등을 하나씩 갖추갈 수 있도록 기존의 규약을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했다.

이후 대표와 감사를 선출했다. 대표로는 허영구 회원, 감사로는 김태호 회원이 선출되었다. 허영구 신임 대표는 “새로운 출발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다시 나섰다. 회원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운동의 주체로 나서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 대표인 신현창, 새로 선출된 허영구 대표, 김태호 감사(왼쪽부터). 좌파노동자회 깃발에는 물려나는 신현창 전 대표에게 남기는 회원들의 인사가 적혀 있다.

그리고 곧 새로운 단체의 창립총회가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새 규약에 따라, 신임 대표가 새 운영위원들을 소개하고 인준 절차를 진행했다. 강진수, 구교현, 김재광, 김태인, 백은중, 신현창과 허영구가 첫 운영위원단으로 인준되었다.

운영위원으로 제안 받은 회원들은 새로운 조직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초부터 모두 다섯 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계획을 정리했고, 당일 총회에서는 대강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 비정규직 노조와 공동으로 조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는 왜 일해도 가난한가?”가 우리가 던질 질문이다. 조사 사업의

주제로는 최악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중년 여성 노동자,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린 대기업 노동자, 청년 빚쟁이들의 현실, 실업자, 소수자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결과는 기자회견, 토론회, 출판 사업으로 모아낼 예정이다.

매월 신문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기 위함이다. 신문은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지에서도 정기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알바와 같은 가장 낮은 곳의 노동자들을 직접 조직하는 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협동조합 등의 수단을 활용해 '일자리'와 '살자리'를 찾아 떠도는 노동자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알바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 전체 불안정노동자 조직 사업으로 확대해 가겠다는 전망도 밝혔다.

이러한 운동의 성과를 모아 비정규직 노조와 노조가 없는 불안정노동자들이 대중적으로 참여하는 연대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 시대 불안정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저임금으로 착취당하고, 일상에서 빚과 집세 각종 생활비로 수탈당하고 있다. 일터에서의 착취에 대해서는 여러 연대 운동이 있지만, 일상에서의 수탈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빚을 탕감하라, 집세를 제한하라, 기본소득을 보장하라 등을 주요 요구로 내걸 계획이다.

〈인터내셔널〉을 함께 부르는 것으로 총회는 모두 끝났다.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노동자운동, 이제 시작되었다.

■ **조교** ■